

세계화와 한국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우 남 희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세계화와 한국 가정생활문화의 변화에 대한 박교수님의 연구는 세계화에 따라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변화양상과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한 의의 있는 논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연구자는 세계화에 따른 문화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문화의 동질성, 문화 제국주의, 소수집단의 취향과 관심의 무시, 세계적인 생활 양식의 전일화, 개별문화 존립의 위협 등등의 표현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욱 강조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연구자는 한국에서의 세계화는 김영삼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90년대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쌀 개방 정책, 재벌지원 정책, OECD 가입 등으로 활용된 한국의 세계화는 원래의 세계화 이념과는 배치되는 세계화의 추진 양상이었으며 오히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국가 중심적 근대성의 논의의 답습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연구자가 한국의 세계화를 시작부터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세계화는 그동안 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시작되었다는 연구자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실, 1993년 11월 29일 김영삼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국제화 개혁 선언은 준비되지 않은 한국의 교육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정치권이 국제화 미래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김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부 각처에서는 국제화를 향하여 갖가지 계획을 세웠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국제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 곧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처럼 되어버렸다. 따라서 영어는 각 회사의 입사시험이나 승진시험에도 필수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교육부에서는 준비도 되지 않은 영어교육을 갑자기 19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그 후 영어교육의 바람은 유아들에게까지 번지게 되었으며, 영어는 곧 세계화라는 잘못된 인식은 날로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확대하여 이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이 범람하고 이에 따른 수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한편, 연구자는 IMF 초기 관리상태였던 1997년을 한국의 세계화 초기로 보면서 이 이전에는 한

국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국가 중심으로 매우 높았다고 하였다. 특히, 산업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만든 원동력도 민족정체성이었다고 하면서 세계화에 의하여 이러한 민족 정체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획일성과 동일성으로 이루어진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이 다원적 민주주의 경험의 부족과 동조성의 압력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의미에서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한국 국민의 지나친 획일성과 동일성은 오히려 세계화를 통하여 융통성있는 변화가 필요했던 특성이라고 본다.

또한, 연구자는 세계화라는 개념 속에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자본의 세계화가 포함된다고 보고 신자유주의에 의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산업의 구조조정은 대량의 실업을 낳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실직과 고용의 불안정으로 가족 및 공동체의 해체가 일어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진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견해도 일리는 있으나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의 개방, 효율성이나 경쟁력의 강화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세계화에 따른 의, 식, 주 등 생활문화에서의 다양한 변화에 대하여서는 대부분 공감할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백일과 돌잔치가 호텔이나 식당에서 축하파티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세계화에 따른 변화라고만 할 수는 없다. 백일이나 돌잔치가 영아의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부모의 행복을 나타내는 축하파티의 형식으로 변모했다는 것은 세계화의 추세가 아니라 한국인의 특성 중의 하나인 겉치레가 경제적인 여유와 더불어 호화스러운 파티로 변질된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를 위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경쟁력은 교육에 의해서 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더욱이 교육의 장으로 가정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최근 한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의 교육을 학원이나 방문교사에게 맡기고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회풍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기교육의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가정중심의 사회로 변하고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안정된 세계화도 꿈꿀 수 있으리라고 본다.

Globalization, Family Life, and the Future Research Environment in Home Economics and Human Sciences의 논문에서 Dr. Moran은 이제 세계는 전자 은행거래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지역적 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하나의 세상, 하나의 시장”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학이나 가족, 그리고 소비자과학이 이제는 국제적, 문화적, 상황적 관점을 이룬의 근거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나비의 날개침이 Knoxville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9/11사태가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정서적인

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황을 고려하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전적으로 공감한다.

연구자는 국제화 시대의 사회에서는 한 영역에서 전문가(specialist)이면서 동시에 다른 학문과 다른 영역을 넘나들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generalist)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정학의 연구자들도 가정학이라는 한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앞으로 계속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연구자는 특히 Wheatley(1999)의 말을 빌려 조직이나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산출될 때에만 조직이 살아나고 세상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정학자들의 역할을 개인과 가정과 사회생활을 지탱해주는 조직사이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틀림이 없는 생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막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오히려 대학과 사회의 기관들이 연계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

앞으로 국제화시대에서는 학제간의 연구와 산학협동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가정학에서도 학자들이 상아탑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연구 방법이나 연구설계부터도 산학협동의 강한 연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른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동일한 내용이라도 다른 척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다른 척도에 의하여 측정되고 분석된 내용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비교되어지고 해석될런지는 의문이다.